



네팔 선교 이야기

2020년 05월 소식지

네팔선교 동역자(Coworker)님께

네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동역자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길 축복합니다.
 전선교사는 2월에 발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6주를 보냈는데 이어지는 봉쇄로 계속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장점이려면 을 하는 성경을 3독을 쉽게 할 수 있고 삼시세끼를 준비하는 아내와 분담해 음식을 하다 보니 음식솜씨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단점이려면 전도하는 일과 사역지를 갈 수 없어서 전화와 기도로 밖에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보다도 대부분의 네팔사람들은 실직과 월세부담, 재정이 없음으로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수들을 보며 평범한 삶과 공동체의 예배가 얼마나 깨달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동역자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마스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마스크를 제작 판매해서 구입하여 렉 다운이 되기 전에 저희 각 교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 빌립보서 2장 4절

3월 중순부터 시작된 렉 다운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감사한 소식도 있습니다. 카트만두 한인교회에서는 구제헌금을 3주간 모금하여 러리플 시청을 통해 어려운 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회의 후원으로 녀야지번, 썩띠쌀리, 녀우다라, 다라가우, 알파교회 120가정의 성도에게 쌀, 식용유, 소금, 설탕 등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수도 카트만두로 올라와 일용직으로 일하는 네팔 사람들이 두 달 넘게 렉 다운으로 일을 하지 못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을 양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특별기

네팔은 3월 봉쇄이후 각 나라에서 전세기나 특별기를 띄워 자국민들을 대부분 싣고 갔습니다. 한국은 지난 4월 10일 첫 번째 전세기가 운항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교회, 한인회, 선교사회가 대한항공의 협조를 얻어 어렵게 특별기가 6월 1일 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 6월 1일부터 대전 노은교회 선교관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 둘째 딸 하선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에 가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학사관에서 혼자 자취하며 공부하던 하선이가 작년 말 보육실습을 하고부터 우울증이 심해져서 불면증에 시달리며 힘들어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도 꺼져있을 때가 많았는데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기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다녀와야 겠기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선이는 몇 일 전 4학년 1학기 유치원 실습도 취소하고 서울에 있는 언니에게 갔습니다. 둘째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선이가 우울증을 잘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 지금 바로 3 분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세 자녀들(하예, 하선, 하민)을 위해, 하선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2. 네팔 선교를 위해 동역(후원)하는 교회와 동역자 가정을 위해
3. 함께 사역하고 있는 네팔 현지 사역자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4. 네팔 교회 지원사역(성찬기 보급,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 네팔 교회들에 십자가가 없는데 네온 십자가를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6. 고아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7. 건축 중인 교회들이 아름답게 잘 건축되도록,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도록.
8.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시도록.
9. 한국에서 딸들이 지낼 집이 잘 구해지고, 딸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후원 안내 : 예금주 : 침례교 해외선교회 (전훈재) 해외선교회 재정부 전화 02-3775-4471

목적 계좌 : 990-007954-330 (KEB 하나은행) : 고아원 및 교회 건축, 염소분양, 성찬기보급, 목회자자녀장학금

일반 계좌 : 181-04-01157-305 (KEB 하나은행) : 생활비 후원 계좌

네팔 전화번호 : +977-98189-54346, 인터넷 전화 : 070-8249-4891

네팔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실 동역자(기도, 물질후원)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2020년 05월 전훈재, 유연화 (하예, 하선, 하민) 가족 올림